

우리의 오래된 미래, 식품사막을 말한다



 **농민신문**

이문수 기자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S마트 와카사초점에서 오오이시 카즈야 점장이 내부를 안내하고 있다. S마트는 민관이 협업해 만든 공공형마트다.

[프롤로그]

나는 무관심과 투쟁한다

‘무관심과의 고독한 싸움’ 2014년 농민신문에 입사한 후 약 10년간 농업전문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위해온 일상을 축약하자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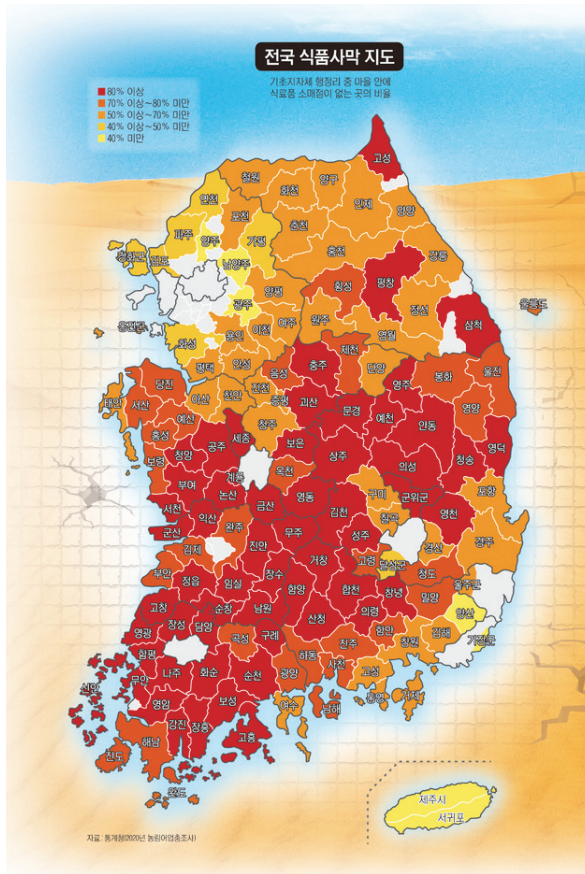
“농업은 생명산업이요~농촌은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시작하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상투적인 수사법은 걸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농촌지역을 규제해 깨끗해진 상수원은 도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제공한다. 자유무역이란 미명하에 자동차와 백색가전을 수출하는 대신 농업 시장을 내

어준다. 희생한 농촌을 위해 농업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번번히 깨진다. 농업과 농촌을 잘 모르는 일부 도시민은 “경쟁력이 없는 농촌은 도태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꺼낸다.

무관심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한때 농촌에 살던 사람이 성공의 꿈을 안고 도시 노동자가 되면서 도농간 교류가 활발했으나 이는 옛말이 됐다.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도시에 살고,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농촌에 산다. 교류가 없으니 무지가 짙고 무관심으로 귀결된다.

‘식품사막’ 문제도 마찬가지다. 근처에 식료품점이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농촌의 식품사막 현상은 도시민에게 그야



농민신문 편집부에서 만든 '전국 식품사막 지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 시도부호·시군구부호·읍면동부호와 통계자료를 일일이 맞춰야 하는 수작업 끝에 탄생한 것이다.

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다.

그럼에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지난해 5월초부터 9월말(계재일 기준)까지 장장 4개월여에 걸친 '식품사막 기획'을 낱실, 씨실 엮듯 한땀한땀 써내려갔다. 농촌의 식품사막은 도시의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거니와 한 사람의 독자라도 농촌 문제에 눈을 돌린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바꿀 변혁의 밑알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였다.

'식품사막 기획', 시작은 미약했다

식품사막 기획의 시작은 단순했다. 김상영 편집부국장이 사회면에 식품사막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며 전국사회부에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한번 정도 지면을 채운다는 심정으로 대강 발제를 하려 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이것이 농촌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할 핵심 개념이 되리라는 감이 왔다. 해당 현



전국에서 활동하는 주재기자가 식료품점이 없는 곳을 누비는 '이동장터' 현장을 찾아 스케치했다.

상이 농촌은 물론 도시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 가령 농촌은 소비자가 없어 식료품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도시 역시 온라인 새벽 배송이 보편화하면서 공룡 유통점도 하나둘 쓰러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지면이나 한번 메꾸자는 안일한 생각을 이내 고쳐먹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며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보도자료가 결정적이었다.

‘전북내 행정리 단위 마을 상당수가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다. 전국단위의 수치가 필요했는데 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회사 건물 1층 휴게실에 상당시간 틀어박혀 이곳저곳 전화를 돌렸다. 다행히도 통계청으로부터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행정리 단위 식품접근성’을 확인할 데이터가 있음을 알게 됐다.

숫자를 해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최초의 지도'를 만들다

통계청이 정리해 놓은 농림어업총조사 안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숫자 쪼가리에 불과하다. 시군단위별 행정리내 식료품점 유무, (만약 점포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과의 접근성 등을 정리하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었다. 3일간 엑셀 파일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추려야 했고, 시도부호·시군구부호·읍면동부호와 통계자료를 일일이 맞춰야 하는 수작업도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전체 행정리 가운데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였다. 표를 정리하고 나니 눈앞의 안개가 싹 걷히는 듯했다. 직접 만든 표를 찬찬히 훑어보니 행정리를 다수 가진 농촌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가령 전북 정읍의 경우 555개 리 가운데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518군데였다. 비율로만 따지면 93%가 넘는 수치다. 전남 영광, 대구 군위(현재 대구 편입),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충남 계룡도 소매점이 없는 마을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그렇다면 독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찾은 후 직면한 과제였다. 국내 농촌을 중심으로 식품사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초 지역을 도는 '식품 이동트럭'.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간지대 마을 곳곳을 누빈다.

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다. 기획을 맡은 당사 전국사회부는 여러차례 걸쳐 편집부와 회의했고, '행정리내 소매점이 없는 비율'에 따라 색깔을 달리해 전국 지도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비율이 높을수록 빨간색에 가깝게 낮을수록 노란색에 가깝게 칠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사 최초로 '전국 식품사막' 지도가 탄생했다. 사내에서도 타 기관이나 언론사에서 작성한 지도를 쓰는 일은 꽤 있었으나 우리의 손으로 사회 문제를 담은 지도를 완성한 것은 선례가 드물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조직의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는 주재기자의 도움으로 기사의 현장감은 한층 짙어졌



와카사초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품 이동트럭'을 운영하는 코지마 씨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다. 오영채·이시내·김광동·장재혁·김다정·서륜·박철현·이현진 기자가 농촌 곳곳을 누비며 농민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히 이현진 기자는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2리를 찾아 이장을 따라 '대파와 과일' 같은 간단한 식료품을 사보는 체험을 했다. 이곳은 북한강이 굽이치는 지형 탓에 외딴 섬처럼 고립된 특징을 보인다. 취재 결과 도시민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왕복 80k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오가야 대파 한단을 살 수 있는 마을이 21세기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농업전문지 기자였지만 농촌이 놓여있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면서 취재 과정은 놀람의 연속이었다.

사회 반향, 도시 출신 대학생의 관심을 이끈다

식품사막 기획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반향이 있었다. 농촌 문제는 정치의 영역처럼 독자들로부터 즉각적이고 때론 감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가 무척 어려워 ‘생각지 못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5월10일 빨강게 물들인 ‘식품사막 지도’와 함께 포문을 연 기획기사가 나가자 각계각층으로부터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했다. 10년 기자생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특히 과거 주재기자 시절 연을 맺었던 전남 지역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 기자, 식품사막 기사 잘 봤어. 우리도 전남권 식품사막 현황을 기사화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식품사막 지도는 어떻게 만든거지?”

“이 기자 기사 나간 다음에 서울의 주요 매체에서 전화가 계속 오네. 우리 조합 이동형 장터 취재 오겠다고 말이야. 취재진들이 몰리니 당신 덕분에 시골마을에 활력이 도네 그러~”

기획기사에 고마워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늘 질문을 던지는 인터뷰어(Interviewer)였는데 이 기획 덕분에 난생 처음 질문에 답을 하는 인터뷰이(Interviewee)가 됐다.

6월초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최승영 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최 기자로부터 기획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부서별 협업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취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도시 출신의 몇몇 대학생들이 농촌의 식품사막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다. 5명의 대학생 무리가 ‘기자협회보’의 식품사막 인터뷰를 봤다며 그들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연락을 취해왔다.

유선재(서울시립대 건축학과)·변효진(서울대 지리학과)·노신화(성균관대 사회학과)·이채영(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오지현(연세대 사회학과) 학생

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돼 학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는데 식품사막 기사에서 단서를 얻어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이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성장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식품사막을 포함한 농촌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을 어부’를 찾은 심정이 들었다.

현해탄을 건너가 기획을 매조지다

식품사막 기획이 기대 이상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편집국 안에서 외국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룰 후속 기사를 내보내자는 의견이 비등했다. 그래서 자국내 식품사막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본 돗토리현을 취재하기로 했다.

현장을 찾아보니 돗토리현은 식품사막 문제가 심화하면서 큰 홍역을 앓아야 했다. 산간 지형이 주를 이루는 돗토리현은 우리나라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우하향해왔다. 1990년 61만6000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55만명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역사회와 공통체를 지탱해온 JA전농(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 농협과 비슷한 조직) 계열 마트 20곳이 2023년과 2024년 사이 한꺼번에 사라

졌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폐점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식품 이동트럭’ 운영자, 코지마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동행취재 형식으로 그를 온종일 따라다녔는데 벽촌 중의 벽촌, 산간지대 중간에 자리한 와카사초 마을에선 진풍경이 펼쳐졌다. 차가 마을에 당도한 후 일본식 가요인 엔카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쥐죽은 듯 고요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졌다. 허리가 굽은 70~90대 어르신 10여명이 한꺼번에 이동트럭에 몰려들었다.

버스 한대 다니지 않고, 변변한 식료품점 하나 없는 이 시골마을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이는 오직 코지마 씨 한명이다. 떨리는 손으로 우유와 돼지고기를 집어든 한 할머니의 말이 심금을 울렸다.

“시간표 보면서 코지마 씨가 올때를 손꼽아 기다려. 어떨 때에는 코지마 씨가 오기 전부터 밖에 나와 있기도 해. 이 사나이가 과묵해도 가끔 마을 밖 소식도 전해주고 맛있는 식재료도 공급해주니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트럭에서 흘러나오는 엔카소리만 들어도 힘없던 팔다리에 기운이 솟는다니깐.”

[에필로그]

‘소수자의 신음에 반응하는 사회를 꿈꾼다

민주주의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표가 되지 않는 소수자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농촌의 식품사막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골목마다 편의점이 즐비한 도시에 사는 이들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주제다. 유권자가 적은 농촌의 일이니 정치권과 정부가 외면한다.

식품사막 기획기사에 달린 댓글도 공격적이다.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 식료품점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거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으랴. 평생 고향을 지켜온 시골 어르신이 마을에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들이 마음놓고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책무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진다. 때론 주류의 주장이 선(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비주류의 의견은 악(惡)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다.

식품사막은 비단 먹거리 접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아픔을 함께하는가, 그들의 신음에 반응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농민신문이 쓰아 올린 ‘식품사막 기획 기사’가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길 표지석이 되길 기대한다. 🍷

농민신문 이문수 기자